

# 한무숙 소설 『역사는 흐른다』에 나타난 내셔널리즘과 젠더\*

김현주\*\*

## 차례

1. 한무숙과 『역사는 흐른다』
2. 소설의 결말, 3·1절 기념식에 표상된 내셔널리즘
3. 소환된 민족의 역사,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관계
  - 3.1. 내셔널리즘으로 포섭되는 여성, 정치적 주체와 현모양처
  - 3.2.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배제되는 여성, 규율화된 신체와 친일 협력자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한무숙의 소설 『역사는 흐른다』를 중심으로 내셔널리즘의 성격과 젠더의식을 살펴보았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아젠더를 실현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을 구축하려고 했다. 이 시기 아젠더는 좌우익의 이념 극복, 식민지와 전통사회의 잔재 청산, 경제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이 핵심 쟁점이었다. 『역사는 흐른다』는 이 문제를 3.1절 기념식을 통해 재현하면서 내셔널리즘의 이상을 제시한다. 친일/국민의 구별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좌우익의 이념 극복의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 이 글은 하와이 대학(USA)에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주제: “Intersectionality of History,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and Gender: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Women Writers and Their Works”, 2019.2.13~2.15)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2년도)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취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친일 협력자마저 국민으로 수용하는 남한 정부나 수동적 협력자마저 국민에서 배제하는 38선 이북의 정권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역사는 흐른다』는 탈이념적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사회원리를 모색하는데, 이를 전통적 사회에서 소환하지는 않는다. 민족의 역사는 신분과 성별에 의해 세밀하게 위계화된 전통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그 제도와 규범은 사회의 질서와 민족 공동체를 규합하는 힘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합리주의에 의해 구축된 능력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사회원리를 모색하게 된다. 능력만 갖추었다면 신분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적 성공도 하고 정치적 주체로도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소망한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흐른다』는 능력주의 사회로의 지나친 편향성을 노정하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현모양처를 근대적 여성상이라는 환상을 구현한다. 또한 여성의 주체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셔널리즘의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한계 역시 노출한다.

핵심어 :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내셔널리즘, 젠더, 정치적 주체, 현모양처, 능력주의 사회, 국민(國民), 민족(民族)

## 1. 한무숙과 『역사는 흐른다』

한무숙(1918~1993)은 소녀시절에는 “<문학소녀>가 아니라 <그림소녀>”였기에, 1935년에 김말봉의 연재소설 『밀림』(『동아일보』)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건강 악화로 미술 공부를 중단하였으나, “전통적 개성”도 “근대적 발랄”도 없다고 자인하면서 “모든 동요와 싸우고 또는 사색하고

수양하여 가급적 명랑”하게 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한다.<sup>1)</sup> 결혼 후에 시집살이로 인해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다가, 1942년 『신세대』의 장편소설 현상 공모를 보고 “인간다운 삶에의 열망”이 다시 불씨처럼 도져 나와, 피로한 몸을 이끌고 모로 누운 채 종이를 벽에 대고 죽자 살자 쓴 글이 『灯を持つ女(등불 드는 여인)』이었다.<sup>2)</sup> 그 후 조선연극문화협회 희곡 현상공모에 1943년 『마음』, 1944년 『서리꽃』이 연이어 당선될 정도로 문재(文才)를 인정받는다.<sup>3)</sup> 그러나 시집살이는 작가에게 당선 시상식 참석도, 문단 활동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무숙은 “똑같은 긴장과 노역의 날이 새고 지는 그 괴롭고 무의미한 피로와 침체와 권태를 훨훨 털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는 못했다. 그 결과 1948년 10월 중순에 『국제신문』 장편소설 모집 공고를 보고 40여일 만에 1,500매의 『역사는 흐른다』를 마감하는 기염을 토해낸다. 작가는 “쓰고 싶다!”는 절규에 가까운 내면의 소리가 짧은 기간 내에 이 소설을 쓰게 한 힘이었다고 발언한다.<sup>4)</sup> 그 후 “붓을 쥐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정도로, 한무숙에게 『역사는 흐른다』는 작가 활동의 중요한 시발점이자 작가 의식을 강하게 부여한 최초의 작품인 셈이다.<sup>5)</sup>

『역사는 흐른다』는 동학혁명이 발발하기 전인 1891년부터 1946년 3·1절 기념식까지, 즉 역사의 격변기를 시대 배경으로 조선 민족의 일상사이자

- 1) 한무숙, 「나의 자화상」, 『여성』, 조선일보출판부, 1939.1, 34쪽.
- 2) 한무숙은 1,500매 분량의 이 소설을 두 달 남짓 동안 썼다고 한다.(한무숙, 「불씨」, 『내 마음에 뜬 달』, 을유문화사, 1992, 34쪽) 한무숙재단이 이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2000년에 일본의 도가서방 공동으로 출간하였다. 이호규,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 『한무숙 문학세계』, 새미, 2000, 35쪽.
- 3) 장영우는 한무숙이 희곡을 공모한 기관을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선연극문화협회’로 추정한다. 장영우, 「한무숙 소설의 현실인식」, 『한국어문학연구』 40집, 어문연구학회, 2003, 278쪽, 각주 2) 참조.
- 4) 한무숙에게 소설을 쓴다는 것은 똑같은 긴장과 노역의 날이 주는 무의미한 피로와 침체, 권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였던 것이다. 즉 ‘쓰고 싶다는 절규는’ 살고 싶다는 내적 절규로 보인다.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를 쓰던 무렵」, 『역사는 흐른다』, 을유문화사, 1992, 376~377쪽.
- 5) 한무숙, 「불씨」, 앞의 책, 37쪽.

저항사를 담고 있다. 한무숙은 주간의 권유로 삼화까지 직접 그리는 열정을 보였지만,<sup>6)</sup> 『국제신보』의 갑작스런 폐간으로 1949년부터 『태양신문』(『한국일보』 전신)에 『역사는 흐른다』를 연재하게 된다. 연재 직후 단행본 출간기념회를 할 정도였으니, 소설의 대중적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sup>7)</sup>

그런데 『역사는 흐른다』에 관한 연구는 한무숙의 5,60년대 작품보다 약소한 편이며, 역사소설이라는 장르적 규정 때문인지 주로 역사인식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즉 조남현은 이 소설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구한말에서 해방까지의 역사를 영웅사관에 바탕을 두면서 신성사의 시각으로 엮어 낸” 우리소설사의 사건이라고 고평한다.<sup>8)</sup> 이와 달리 장영우와 이문구는 이 소설을 양반 계층의 몰락과 평민계층의 신분 상승을 생생하게 묘사한 민중연대기적 작품이라고 평가한다.<sup>9)</sup> 이문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작가의 순수한 민중 의식이 빛은 대상적(代償的) 구도의 중추”라고 주장하고, 장영우는 “현실 정치에서 패배한 김구의 정책노선을 역사 전개에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데서” “작가의 탁월한 정치 감각과 현실 비판 인식을 엿볼 수 있다”라고 역설한다.

한편 임헌영은 운동사적 관점에서 『역사는 흐른다』를 바라보면서, “민족 독립 운동사의 주체적 형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이런 시각은 분단 고착화 이후 민족 해방 투사들이 오히려 역사의 변혁 주동 세력으로부터 밀려나 사회의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인식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혜운은 소설 속 인물들이 표면적으로는 봉건적 제도 하에서 주체적 자각

6)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를 쓰던 무렵』, 『역사는 흐른다』, 을유문화사, 1992, 377쪽.

7) 『역사는 흐른다』가 1950년, 백양당에서 초간되었으나, 확인할 수 없다. 1950년 3월 23일 출판기념회를 문예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발기인으로 박종화, 김동리, 모윤숙, 백철 등이 참여했음만 확인된다. 『역사는 흐른다 출판 이십삼일 기념회』, 『동아일보』, 1950.3.22; 『역사는 흐른다 출판 기념회』, 『조선일보』, 1950.3.22.

8) 조남현, 『한무숙 소설의 갈래와 향심』, 『한국현대문학연구』 12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2, 430~431쪽.

9) 장영우, 앞의 글, 279~285쪽; 이문구, 『민족사의 숨결로 승화된 언어』,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145~147쪽.

없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동체 의식을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염승숙은 한무숙의 전후 소설에 드러난 비극적인 시대 인식의 원류를 이 소설에서 찾고 있다.<sup>10)</sup>

반면에 서정자와 조동주는 『역사는 흐른다』에 드러난 역사의식이 상식적 내지 피상적이라고 지적한다. 서정자는 소설의 개작과정에서 역사의식이 강화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에 표면적 굴복을 용인하는 태도는 상식적인 타협의 자세라고 비판한다. 조동주는 소설이 계급적 관점에서 식민시기를 인식하였기에, 대다수 하층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피상적 역사인식을 지녔다고 평가한다.<sup>11)</sup>

이처럼 『역사는 흐른다』에 관류하는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는 큰 편차를 보인다.<sup>12)</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구한말부터 해방직후까지

10) 임현영, 「한무숙 소설에서의 사회의식」,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152쪽; 염승숙, 「한무숙 전후 단편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47쪽; 조혜윤, 「한무숙 소설 연구-전통과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1~138쪽.

11) 서정자에 의하면, 1959년 『한국문학전집』(민중서관)에 실린 『역사는 흐른다』는 백양당(1950.3)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문화사 판(1989)부터 개작되었다. 개작 부분은 장/부의 구분과 제목 설정, 전창규가 송창규로 개명, 정신대와 신사참배 등 일제 만행의 전경화이다. 서정자, 「한무숙 문학정신의 출발, 초기소설연구-발굴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과 『역사는 흐른다』의 개작을 중심으로」, 『소설가 한무숙 선생 탄생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한무숙의 삶과 문학정신』, 한무숙재단, 2018.10.25., 12-15쪽; 조동주, 「한무숙 소설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5, 33쪽.

12) 이 밖에도 『역사는 흐른다』의 서술 문체 및 서술 언어, 인물의 변화과정, 서사구조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언어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서울 양반가의 서술 문체 및 어휘에 관한 논의와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언급한 연구는 다음이 있다. 홍기삼, 「역사와 운명 사이의 여성」, 이호철·김진웅 편, 『풍요한 부재』, 재단법인한무숙재단, 1993, 291쪽; 구중서, 「작가 한무숙과 곤지암」, 이호철·김진홍 편, 『풍요한 부재』, 재단법인한무숙재단, 1993, 100쪽; 이상익, 「현대문학에 나타난 서울 옛말씨의 연구」, 『서울학연구』 17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1, 155~173쪽; 장영우, 앞의 글, 279~285쪽; 오희석, 「한무숙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0, 46쪽; 이문구, 앞의 글, 364쪽.

또한 인물과 서사구조로 접근한 논의도 다음이 있다. 권혜린, 「한무숙 소설의 윤리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2, 29쪽; 홍기삼, 「균형과 조화의 원리」, 『한무숙 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35~36쪽.

한국현대사를 꿰뚫는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표명하려 하였으며, 양반 가문 3대의 가족 서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아마도 원제목이 『삼대』였다는 사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역사는 흐른다』의 결말과 중심서사를 고려한다면 양반 가문 3대의 가족사이자 수난사라는 기본 전제는 수정되어야 하며, 이 소설에 관류하는 역사의식을 내셔널리즘이란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말만을 일별하더라도 이 소설은 가족사를 초월한다. 즉 중국, 미국, 한국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이 3·1절 기념식 날, 성재경의 도미 기념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시공관에서 모이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실제로 1946년 3·1절 기념식은 제2의 민족독립운동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좌우익의 내셔널리즘 결전장으로 격화되었던 행사였다.<sup>14)</sup> 요컨대 3·1운동이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며 민족 개념을 확인한 자리라면, 3·1절 기념식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 건설과 그 주체를 논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흐른다』가 3.1절 기념식을 결말로 설정하였다는 점은 작가 스스로 내셔널리즘의 지향점을 피력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역사는 흐른다』의 결말에서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의 구체성은 서사화 과정에서 구현된다. 소설의 서사는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양반 가문의 혈통이지만 노비의 딸로 태어난 금년

13) 『역사는 흐른다』의 원제가 염상섭의 『삼대』와 동일하다는 편집자의 의견에 따라 제목을 바꾼 것이다. 이하 이 소설의 인용은 을유문화사(1992)판으로 하며, 인용페이지는 본문에 숫자만 표기하고, 강조는 진한 글씨로 표시함.

14) 박명수에 의하면, 1946년 해방 후 첫 번째 3·1절 행사의 주도권은 우익이 쟁취했다. 특히 미군정이 3·1절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우익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반면에 좌익은 처음에는 3·1운동을 부정하다가 뒤늦게 행사를 계획했으나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박명수, 「1946년 3·1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권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85~122쪽.

15)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부터 기념해 온 3·1절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자, 독립운동의 출발일로 삼았다.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53~84쪽.

의 탄생 비화로부터 시작하여, 그 인물의 성장 과정과 3·1절 기념식에서 해후하는 인물들과의 공유 기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금년은 1950년대 이후 한무숙의 여성 주인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인물이다. “욕망과 갈등, 균열 등을 보여주지만 결국 이를 전통적인 유교질서나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봉합하”<sup>16)</sup>거나 운명을 수긍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여성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는 흐른다』는 전통적 여성상에 깊이 경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 모랄 속에 안주하는 재래적 부덕(婦德)을 스스로의 삶의 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부장적 권위의 질곡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여성적 리얼리즘”을 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7)</sup>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새로운 여성적 자의식의 복합적 국면들을 포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up>18)</sup> 이처럼 남성 중심의 해방기 작품 속에서, 특이하게도 『역사는 흐른다』는 남성의 수난이나 전통적 규범에 귀속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일지라도 전통적 규범과 제도와 갈등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재현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흐른다』에 드러난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젠더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는 흐른다』에서 1946년 3·1절 기념식을 중심으로 내셔널리즘을 서사화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해 먼저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의 역사

16) 장은영, 『사랑의 실패들-한무숙 소설의 인물에 대한 심리학적 일고찰』, 『국어국문』 68호, 국어문화회, 2018.7, 154쪽; 송인화, 『성적 욕망의 풀어냄과 감추어짐』, 『현대문학의 연구』 8권,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159~210쪽.

17) 오희석에 의하면, 한무숙의 소설이 여성의 현실적 억압을 극복하는 방안을 여성 내부에서 찾고 있다. 오소영 역시 『역사는 흐른다』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수국』(『희망』, 1949.12.)을 분석하면서, 주인공이 인습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현실적 대안을 가지지 못한 여성적 삶에 대한 고발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오희석, 앞의 글, 20쪽; 오소영, 『한무숙 소설의 페미니즘적 요소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17~26쪽.

18) 홍기삼, 『역사와 운명 사이의 여성』, 앞의 책, 302쪽.

를 복원하고 그에 투사된 젠더 의식과 내셔널리즘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 2. 소설의 결말, 3·1절 기념식에 표상된 내셔널리즘

해방기는 해방의 기쁨을 잠시 누렸을 뿐,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아젠더 구축을 두고 이념적 갈등이 극심한 시기였다. 이 시기 좌우익의 이념 극복, 식민지와 전통사회의 잔재 청산, 경제 활성화라는 복잡한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갈등의 핵심이었다. 해방 다음해에 거행된 3·1절 첫 기념식에서는 해방기 핵심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아젠더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가운데 좌우익의 이념적 지향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했다. 분명 3·1절 기념식은 민족과 국민국가가 합치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나, 좌우익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상이하게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방기 소설에서 작가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3·1절이 표상되고, 내셔널리즘이 담론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19)</sup> 소설의 결말은 1946년 3·1절 기념식이지만, 『역사는 흐른다』의 창작은 3년 남짓의 시간적 편차가 있다. 남북 모두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분단 체제를 정비해 가는 시기, 즉 남북 모두 독자적인 내셔널리즘을 구축하고,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정치적 장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시기에 창작된 것이다. 남북한 모두 자신들이 구축한 내셔널리즘이 혈연의 실체성과 상상의 이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목도한/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20)</sup> 실체와 이념

19) 정중현에 의하면, 우익계열의 작가의 경우 3·1운동을 민족저항사의 정점으로 표상하고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 내러티브로 구조하는 한편, 좌익계열의 작가는 3·1운동의 주도세력을 농민, 노동자 중심의 계급적 주체로 규정하고 그에 기반 하여 민족이라는 동일자로 내셔널리즘을 재편하려 한다. 정중현, 『3·1운동 표상과 문화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23호, 한민족문화학회, 2007, 239~276쪽.

20) 도진순에 의하면, 이 소설이 창작될 당시인 1949년에 김구는 이승만과 달리 혈연



의 격차로 인한 갈등은, 내셔널리즘이 정치적 단위와 문화적 단위의 일치를 국민/민족(nation)을 전통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원리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sup>21)</sup>

여기서 『역사는 흐른다』의 결말이 표면적으로는 “바로 3월 1일 날”(356), 성재경의 도미 기념 연주회 날로 명시되고 있으나, 좌우익 어느 쪽도 주도하지 않은 제3의 3·1절 기념식 행사를 재현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독립투사가 처음으로 1946년 3·1절 행사에서 있었으며 대부분 음악회와 함께 치러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상기할 때,<sup>22)</sup> 이 소설 결말에서 3.1절 기념식을 음악회로 설정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박옥련, 배선명, 조석구 등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집결시켜 제3의 내셔널리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층 로얄 박스에 앉아 있던 박 여사가 불현듯

“오! 조석구 장군!”

낮으나 힘 있는 소리로 말하고 지난달 재경과 약혼한 갑혜 옆에 앉은 초로의 신사와 다음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송 박사를 바라보았다.

초로의 신사-그는 전날 귀국한 배선명 씨였다. (...)

---

적 민족주의론에 근거하여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하였으며 민족 내 남북 및 좌우의 분열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도진순, 『1948~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97~139쪽.

- 21) 이 글에서는 혈연적 공동체의 구성원을 민족으로, 상상적 공동체인 국가 구성원을 국민으로 구분·서술하고 있다. 강상중에 의하면, 모든 내셔널리즘에는 민족과 국민의 의미가 길항한다. Giddens처럼 내셔널리즘을 상상의 공동체로 간주하는 것은 가짜 자국민으로부터 강박 관념적으로 진짜 자국민을 상상하는 투영의 메커니즘이다. 반면에 Berlin처럼 혈연 공동체에 근거한 사회적 실체를 지닌 인간 결합의 단위라는 Herder의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셔널리즘이 공존한다. 이런 양의성은 NATION 관념의 이중성과도 연관이 있다. 강상중, 임성모 역, 『내셔널리즘』, 이산, 2004, 25~31쪽.
- 22) 1946년 3·1절 기념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회는 『자유신문』이 주최한 ‘여학교연합음악회’로, 서울 소재 여학교가 총동원되었다. 『DK서 전국에 가창지도』, 『자유신문』, 1946.2.21.

남장을 앞세우고 들어온 조석구 장군은 박 여사를 보자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보내고 그 앞으로 걸어갔다. 배씨는 덧니를 보이며 밝은 미소를 띄우고 일어서 조 장군을 맞았다.

그의 손을 힘차게 잡은 배 씨는

“동지 배선명 오늘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반갑습니다.”(357)

인용문에서 보듯,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박옥련의 감탄을 시작으로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조석구 장군을 영접한다. 그의 등장에 맞추어 <우국지사>라는 노래의 “장엄한 음률이 청중으로 가득 찬 장내에 흘러 퍼지기 시작”한다. 3·1운동이 국권 상실과 ‘민족’ 개념을 확인하고 민족 되기를 다짐한 날이라면, 해방 후 첫 번째 3·1절 기념식은 새로운 국가와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표방하고 국민의 자격을 논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소설의 결말에서 다수의 대중이 조석구 장군을 통치권자로 영접하고 추대하고 있는 바, 이 자리는 3.1운동을 기념하는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내셔널리즘의 성격과 국민국가의 형성을 은유하는 뜻깊은 자리인 것이다.<sup>23)</sup> 또한 해방 후 누구를 국민으로 호명하는가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기념식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좌우익의 이념적 지향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했던 지점인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조석구 장군의 영접은 단순히 독립 영웅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광복군 활동에 내셔널리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며,<sup>24)</sup> 동시에 전통사회의

23) 이는 동시대 김광주의 소설이 귀환한 혁명 영웅의 좌절감을 재현하는데 몰두한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김광주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귀환하여, 『바다는 말이 없다』(『연합신문』, 1949.6.2-6.22), 『남편은 무능했다』(『신천지』 46호, 1950.5.)을 발표했다. 이 소설에서 조선으로 귀환한 식민시기의 혁명가는 정치적·경제적 무능력자로 재현된다. 혁명가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적 공간, 즉 해방기의 이중성과 혁명가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한무숙 역시 『허물어진 환상』(1953)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대필업으로 전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규범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좌익과 우익을 통합할 수 있는, 외교적 수완 등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새로운 국가의 통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그가 “불타는 애국지성과 고결한 인격과 청렴한 생활”(346)로 결혼도 하지 않고 침식을 잇을 정도로 조국 광복에만 일생을 바쳤으며, “열렬한 애국심과 명석한 두뇌와 열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단호한 결단력을 가진 호탕하고 탁월한 무인”(262)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 받아왔고, “광복 영웅의 개선”(351) 이라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귀환했던가를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진정한 조선 사람이면 다 같지요. 국민이라는 것이,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역사와 같은 소망과 목적과 같은 이해를 가진 공동체가 아닙니까? 의사소통은 스스로 되는 것이지요.”(262)

배선명과 박옥련의 대화인 인용 부분에서도,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압축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이 역사, 언어 등 문화 전반을 공유한 민족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역사는 흐른다』의 내셔널리즘은 조선 사람이면 모두 국민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문화 민족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식민권력에 맞선 소극적 대응도 민족 서사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내셔널리즘과 식민지 잔재 청산에 접근한다. 예컨대 신사참배 거부가 생존을 위협하자, 배선명은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굳은 지조와 한결같은 열성으로 끝까지 힘을 바친다면 사소한 티”(26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송창규 목사 역시 “마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할 때 고개를 약간 숙이는 시늉을”(218)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문제가 적극적 항일보다 우선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친일/국민의 구별 짓기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너무 엄

24) 이 소설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중국 광복군 활동에 두고 있는 바, 이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한 정부의 노선과 대립되는 지점이다.

격할 경우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판단이며, 이 판단은 친일의 범주를 최소화하지는 입장과 연결된다. 자신의 매부를 고발하여 식민권력의 하수인으로 승승장구한 조용구와 같은 적극적인 친일협력자만 내셔널리즘에서 배제하지는 유연한 입장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에서는 좌우익의 통합과 통일 국가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지정학적으로 38선 이북과 그곳의 주권자들을 내셔널리즘의 경계 밖으로 추방시키고 있다. 조석구 장군의 말을 통해 타인에 의한 해방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기된 바 있는데, 38선 이북에서의 상황은 그 폐단을 압축한 상황으로 재현된다. 즉 “일군 물러간 후 새로이 진주해 온 소련병”의 약탈이 자행되고(348), 심지어 죄 없는 이승지 집 며느리가 강간당하기도 한다. 물론 “힘없는 농민”을 괴롭히던 일제 앞잡이를 처단하기도 하지만, “마을 앞 개울에 다리도 놓아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 바도 적지 않았”던 정승택 영감(장끼아범)도 악질 지주로 낙인 찍혀서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38선 이북에서는 소련병과 사회주의자들이 주권 세력이 되어, 힘없는 농민을 괴롭히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죄 이외는 그리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는 사람”도 처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348) 지주, 부자, 양반 등을 모두 국민에서 소외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과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을 모두 부정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서사화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만을 강조하는 38선 이북을 타자화시키는 것이며, ‘힘없는 농민’, ‘그리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는 사람’,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 민족을 내셔널리즘의 국민으로 포섭하려는 수사적 전략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조용구, 유미 부부 등 아주 극소수의 자발적 친일협력자만이 새로운 국가의 국민에서 배제된다. 이들과 달리 조동준, 조병구, 장끼아범 등과 같은 전통사회의 권력자나 신흥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민중혁명인 동학 등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 즉 동학(東學)이 “계급투쟁(階級鬪爭)을 목적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일어”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조직의 체계화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집단 즉 “술렁거리는 인심은 흑백의 판별을 못하고 단순한 반란과 노략질로만 알고 꺼려하고 무서워하였던” 패거리로 간주한다.(49)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공정한 경쟁보다는 협잡, 포용보다는 배제, 개인의 인권보다는 집단의 이익, 자유보다는 통제를 통해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인물들이나 사건에 대해서 취하는 수사적 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의 태도를 취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시대의 전통적 제도와 규범의 강요, 비합리적인 폭력성을 새 시대의 내셔널리즘과 분리시키려는 숨은 의도인 것이다.

한편 해방 후 산업 기반의 붕괴, 전재민의 유입 등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 역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반면에 박옥련, 배선명, 송창규 등이 사회적 명망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내셔널리즘의 사회 원리를 추적하는 가운데 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내셔널리즘이란 관념이 “자기충족적인 발생요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의 일부로 성장”했었기에<sup>25)</sup> 자본주의와 연관된 다른 관념들과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내셔널리즘에의 자발적 동조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근대의 기본 덕목과 물질적 토대도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합리성이 구축되어야만 내셔널리즘이 구축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내셔널리즘에 동조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박옥련, 배선명 등은 모두 자유 의지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음식점 주방 보조, 도로 청소부, 농장 인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며, 신분

25) 진영복,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사회사상과 윤리』, 『2018 가을 토지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박경리문학의四季-초기소설에서 콘텐츠 활용』, 토지학회, 2018, 11쪽.

과 성별의 구시대적 제약을 벗어나 자본주의의 물질 토대에서 실력을 키우고 근대적 덕목을 학습한 인물들이다. 이들을 통해 미국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 원리에 공감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지인 셈이다. 미국이란 나라를 계급이나 성별이 개인의 발전에 장애가 되거나 정치적 야합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 경직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삶에 대한 성실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를 체득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모범으로 여겼던 것이다. 물론 능력주의 사회가 개인 간의 무한 경쟁과 소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만, 내셔널리즘의 사회 원리가 왜 개인의 능력에 근거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를 소환하고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설득력을 갖는다.

### 3. 소환된 민족의 역사,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관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는 흐른다』의 결말은 내셔널리즘의 성격과 국민국가의 형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소설 서사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필연성은 구한말 1991년 정월으로부터 동학의 발발, 을미사변, 신민회 사건, 헤이그밀사사건, 고종 황제의 양위와 군대 해산, 의병 활동, 3·1운동, 국내외 독립운동까지 굽직한 역사적 사건과 그 역사적 국면들에 얽혀 있는 조선 민족, 특히 여성의 일상사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해명된다.<sup>26)</sup>

흥미로운 사실은 동학의 발발이 아니라 그로부터 3년 전 즉 금년의 탄

26) Giddens에 의하면, 정체성 유지는 근대성의 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전통의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되어 버렸다. Giddens, Anthony, 『탈전통사회에서 산다는 것』, Giddens, Anthony 외, 임현진 외 역,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144쪽.

생 비화로부터 소설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소설의 첫머리는 마을과 마을 간에 줄썸 경합을 정점으로, 한 해의 풍년을 기약하는 정월의 흥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부용이란 여중은 젊은 농사꾼 영쇠와 결혼할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상전의 겁탈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용의 어머니는 부용에게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노비의 운명에 순응할 것을 당부한다. 전통사회의 관습으로는, 양반의 노비 겁탈은 법적 또는 양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양반에게 개인적 결합이나 책임으로 작동되지도 않았다.

전통적 규범이 관습화 된 사회에서 양반의 사생아로 태어난, 금년의 성장 서사가 바로 『역사는 흐른다』인 것이다. 요컨대 소설은 금년이 노비의 삶을 순응하다가 자유 의지로 노비의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고 독립운동가이자 학교 교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따라서 금년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조선 민족의 전통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며, 특정한 젠더 의식과 내셔널리즘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어떠한 여성을 호명하고, 어떠한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3.1. 내셔널리즘으로 포섭되는 여성, 정치적 주체와 현모양처

『역사는 흐른다』에서 근대교육의 수혜자이자 시혜자가 된 박옥련은 원래 노비 출신의 금년이였다. 금년은 상전의 혼외 자식으로 어미 부용의 젓마저 상전 아씨에게 빼앗긴 채, 보살피 주는 사람 없는 유아기를 보낸다. 그러나 금년은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울 아버지가 영감 아니라 대감이라두 그까짓 중첩의 딸 누가 그리 대단히 알아주겠”(78)라며,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자기의 권리나 욕망을 표현하거나 실현하지 못하는 노비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 이후, 금년은 운명으로 여겼던 신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하는 욕망, 즉 “시원치 않은 종의 몸, 공부나 해서 세상 물정을 알아 나”(118) 보자는 욕망이 생긴다. 이에 자신의 신체, 욕망을 제약하던 전통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자유 의지로 벗어나, 근대적 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박옥련으로 개명한다.

스무 살 때 도망질을 쳐서 당시 조출한 집 딸들은 다들 보내기를 꺼리던 학교에 입학했었지요. 워낙에 벼락 방망이로 생긴데다가 원한도 사무쳐, 남달리 안달로 공부를 하는 것이 서양인 교사의 눈에 띄어 그의 양녀가 되어 미주까지 유학을 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성도 배우지 않으면 무식자로 낙오자가 되게 되자 고루한 양가의 부녀자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결눈질로 보며 내심 그들을 경멸로 하고 냉소도 했었을 것이예요.(279)

이처럼 박옥련은 근대적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구시대의 계급적, 성별적 타자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한다. 박옥련은 이화학당에 입학한 후 개명하는데, 이 개명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 하나는 근대적 자아로의 성장이자 전환을 상징한다. 박옥련으로의 개명은 전통사회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 개혁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 근대적 자아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금년이 전통사회의 규범에 예속된 자아였다면, 박옥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대적 인식의 소유자이며,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주체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박옥련이 혈연이나 법적 관계와 무관하게 '박'이라는 성을 채택한 것도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박옥련으로의 개명은 여성도 역사의 비역사적(a-historic) 타자"가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장인 제가 학생들보고 신사 앞에서 나가 절을 하라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자꾸만 고초를 겪고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 수도 없지요.(217)

인용처럼 박옥련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역사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 것이다. 그녀는 “신분의 귀천은 사람이 만드는 것”(278)임을 몸소 보여주며,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었”(279)다면 성별의 차등이나 차별 없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빙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직의 딸 갑혜 역시 신사참배 등 불합리한 일제의 정책에 대항하는 결단성을 보여준다. 갑혜 역시 박옥련과 마찬가지로 근대교육의 수혜자로,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전통사회와 식민 권력의 규율 체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의 여성 주체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는 흐른다』는 내셔널리즘의 범주 안으로 조씨 부인과 필순을 호명하고 있다. 조씨 부인은 조동준의 딸로, “갈수록 인정이 말라가는 어머니에게 눌러 지내는 사람들을 두둔하여 상하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71)을 정도로 심성이 고운 양반가 규수로 성장한다. 남편 이규직이 신민회 사건의 핵심인물로 식민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유복녀 갑혜와 함께 하숙집을 운영하는 처지가 된다. 어머니 송씨 부인과 달리 양반가 부인이지만 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면서, 하숙생들을 신분의 차별 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살핀다. 필순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3살이나 어린 송창규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지만, 구박하던 남편이 홀연히 가출하자 15년 동안 혼자서 자식과 부모님을 보살폈던 순종적인 구시대의 여성이다. 그러나 15년 후 목사가 되어 나타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남편을 따라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젊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원조를 해 주는 등 남편과 주변사람들에게 고향처럼, 어머니처럼 위안을 주는 위대한 여성으로 거듭난다. 이처럼 조씨 부인이나 필순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규범 속에서 순종적인 여성상을 학습 받고 살아왔지만, 신분을 넘나들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감성적 감각과 모성성을 지닌 여성이

다. 그러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자기 갱신을 통해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들은 근대로의 변화과정에서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균열적 지점을 만들었던 것이다. 조씨 부인이나 필순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규범 속에서 순종적인 여성상을 학습 받고 살아왔지만, 신분에 구애 없이 타인과 소통하는 감성적 감각과 모성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대에서 존경 받는 여성이 된다. 온전히 자의는 아니지만, 자기 갱신을 통해 독립운동의 보조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조씨 부인이나 필순의 경우, 박옥련과 달리 현모양처라는 여성상으로 근대적 내셔널리즘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규범에 따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던 송씨 부인과 달리, 근대로의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하고 복잡한 근대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그 관계망 속에 자신의 역할을 확장한다. 그 결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사적 영역의 주관자이자, 감성적 감각을 지닌 현모양처로서 호명된다. 이들이 지닌 품성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환상을 설득적 있게 생산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전통 사회나 식민 권력처럼 개인을 압박하는 비인간적인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망하게 하고 사회 정치적 실현에 대한 관념을 주조시킨다. 이와 같이 내셔널리즘으로 포섭되는 여성들은 전통/근대의 경계가 아니라, 그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 구성된 타자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개인적 열정을 지닌 인물들로 서사화된다. 특히 당대 여성 독자들에게는 박옥련이란 여성 인물이 현실세계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여성의 자의식을 각성시키며 여성의 공적 생활에 대한 욕구를 추동시키고 있다.<sup>27)</sup>

비록 조석구, 조씨 부인, 송씨 부인 등과 다면적 관계를 맺으면서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금년의 삶과는 반대로, 박옥련의 삶은 독립운동이나 신

27) 전통적 제도와 규범에서 여성의 예측과 고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립이라는 한무숙의 여성 서사는 초기작 『등잔불 드는 여인』에서 여주인공을 통해 해도 드러낸 바 있다.

사참배에 대한 정치적 대응 논의로 단조롭게 수렴된다. 즉 생활자로서의 감각보다는 운동가로서의 의지가 전면화되면서, 박옥련의 삶은 지극히 단면적으로 묘사된다. 이는 정치적 주체로 성장한 여성을 지나치게 이상화한 결과이다. 게다가 작가의 실제적 생활공간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박옥련과 같은 여성의 일상을 상상하기에는 물리적 격차가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박옥련이나 갑혜와 같은 정치적 활동가를 통해, 당대 대중독자, 특히 여성독자들에게 공적 생활에의 요구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감을 주조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3.2.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배제되는 여성, 규율화된 신체와 친일 협력자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근대 교육의 수혜자나 내셔널리즘에 포섭되는 여성의 삶보다 전통적인 관습을 운명처럼 수용하는 여성들의 삶이 더욱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부용의 슬픈 이야기나, 부용, 부용 모, 금년 등의 노비들을 통해, 전통 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였던 신분 제도가 이들의 신체 규율(discipline)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생동감 있게 재현된다. 부용이 상전에게 강간을 당하고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였지만, 신분의 제약을 신체 권력으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억울함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딸이 돼지우리 같은 골방에서 “실 같은 목숨을 이어”(45)가고 생인손의 고통을 앓지만 상전의 명령에 따라 딸을 돌봐주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할 뿐이다. 금년은 개인의 불행조차도 운명으로 여기는 어머니 부용과 마찬가지로 상전에 대해 원망조차 갖지 않는 씩씩한 노비로 성장한다. 부용은 딸이 교전비가 되어 이별하게 되자, 비로소 딸에게 탄생 비화(秘話)를 전해 준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금년은 부용과 마찬가지로 “중첩의 딸”(78)이 중첩이라는 시대적 규범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피지배층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거세당한

채 비주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장점은 전통적 제도나 규범이 하층민만이 아니라 양반가 부인들에게도 신체 규율로 작동하고 있음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정 없는, “전형적 양반 부인”(42)으로 재현되는 조동준의 아내이자 조병구의 모친인 송씨 부인이다.

방에선 매몰스러운 부인(송씨 부인-인용자)이 앓는 소리 하나 없이 고통을 참고 사람들을 대청으로 내어 쫓은 후 단지 혼자서 여아를 분만했다. (...) 대청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히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은 쪼르르 땀만 흘렀을 뿐 단정한 태도를 흘트리지 않고 있었다.(41)

인용처럼 송씨 부인은 아이를 분만하면서도 “땀만 흘렀을 뿐 단정한 태도”를 취할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양반의 규율을 준칙한다. 즉 남성에 의해 만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스스로를 예속시키고 철저히 그 규범을 준수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자연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행동을 학습된 성 정체성에 비추어 그녀 스스로 감시하고 규율한 결과이다. 젠더를 성에 부착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심신조차 철저히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 간의 권력 불균형을 자발적으로 뿌리 깊은 심리적 특성들과 결합시킴으로써, 둘 사이의 구분이 매우 굳건한 것처럼 스스로를 강제하는 것이다. 게다가 송씨 부인은 신분 간의 권력 불균형마저도 뿌리 깊은 정서적 차별성과 결합시킴으로써, 남성/여성, 그리고 양반/노비의 구분이 매우 굳건한 것처럼 집안 식구들을 규율하는 자발적 감시자가 된다. 그러므로 노비인 부용이 임신하자 “더러운 암캐 같은 년”이라고 조소하고 경멸하기도 하고(37) 자신의 딸을 위해 노비인 부용의 젖마저 그녀의 딸에게 먹이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이며, 어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금년에게 노비의 처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매정하게 호통을 치기도 한다.

품성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석구의 어머니인 박씨 부인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설은 이들 인물들의 예속성이 조동준, 조병구 등 남성의 예속성에 부차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다. 국가가 없는 남성이 가족의 권력 관계에 몰두하듯이, 송씨 부인 역시 전통적 제도나 규범의 메타포이자 그것에 몰두하여 신체 규율의 희생자이며, 부계 혈통 체계의 경직화와 가문 중시 경향에 따라 박씨 부인이나 부용 등 하녀들의 삶을 강제하고 압박할 뿐이다.

이와 같이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부용이나 송씨 부인 등과 같은 여성들은 신분, 품성, 정도에서 편차를 보이지만, 모두 전통적 관습인 신분과 성별에 예속되어 그 예속의 고통을 규율화된 신체로 감내하는 존재들이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도 제공 받지 못했으며 어떤 통로로든 근대를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들은 전통적 규범과 제도의 희생양이자 그것의 부조리함을 내파하는 표상인 것이다. 주어진 신분과 제도에 스스로 신체 규율을 내면화한 채, 그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한번도 갖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송씨 부인, 부용, 부용 모들의 죽음은 전통적 규범과 제도의 부조리함의 압축이며 그 규범과 제도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사는 흐른다』는 전통사회를 비합리성과 폭력성으로 인식하고 전면 부정하는 반면에, 근대사회를 완전무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사회로 무비판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다만 근대로의 편향은 유미를 통해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유미의 경우, 교육, 문화 등을 통해 근대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도 있었지만 내셔널리즘에서 타자화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유미가 3·1절 기념식이 거행되는 시공관 안으로 들어가는 성재경 일행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으로, 내셔널리즘의 타자화가 은유되고 있다. 유미는 일본어 이름 도요야마 루미(とよやま ルミ)에서 해방 후 한국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다. 박옥련의 개명과 달리, 유미의 개명은 혈연적,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해방의 수동적 결과이며, 식민지적 정체성을 정화하는 통과제의인 것이다. 그 결과 유미는 식민권력의 특혜

계층에서 가난한 하층민으로의 전락하게 된다. 그녀는 일찍이 성재경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연인 사이가 될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던 당찬 근대적 여성이었으나, 아버지 조용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식민지 관리와의 결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식민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친일 협력자라는 이유로 유미의 삶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월남 도중에 실명한 남편과 어린 아이를 건사해야 하는 힘겨운 생활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전통적 제도나 규범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신체 규율로 내면화한 전근대적 여성과 달리, 적어도 주체적 선택의 기회가 있었던 도요야마 루미가 단일하게 친일 협력의 길을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소설은 유미처럼 국민의 일원이 된 친일 협력자에게 경제적 궁핍이라는 대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생활의 궁핍에도 불구하고 백모란처럼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에게 “고생스러운 아미 담배 장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뚜쟁이 할멈의 집요한 시선이 따라다니는 한, 유미는 조만간 육체적 나락으로 빠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녀의 아버지 조용구는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녀의 남편은 불구가 되는 등 친일협력자의 비참한 삶을 통해, 『역사는 흐른다』는 적극적인 친일 협력자가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 소환되어서도 안 되며 소환되더라도 국가 권력의 중심부로 편입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시사한다. 이 소설에서 적극적 친일 협력자의 비참한 말로는 일종의 소설적 정의 즉 ‘도덕적 비학(moral occult)’이며 내셔널리즘에서 배제하는 소설적 장치인 셈이다.<sup>28)</sup>

28) P.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p.5.

#### 4. 맺음말

이상에서 한무숙의 『역사는 흐른다』를 중심으로 내셔널리즘의 성격과 젠더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소설은 3.1절 기념식을 통해,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아젠더를 구축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을 모색한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아젠더는 좌우익의 이념 극복, 식민지와 전통사회의 잔재 청산, 경제 활성화라는 복잡한 당면과제의 해결이 핵심 쟁점이 된다. 친일/국민의 구별 짓기가 직접적으로 식민지 잔재 청산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좌우익의 이념 극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친일/국민의 기준이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친일 협력자마저 국민으로 수용하는 남한 정부나 소련의 지지를 받고 수동적 협력자마저 국민에서 배제하는 38선 이북의 정권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소설이 남북한 모두 단독정부가 수립한 후에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탈이념적 민족 공동체의 구현할 수 있는 통일 국가의 수립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소환된 민족의 역사는 신분과 성별에 의해 세밀하게 위계화된 전통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그 제도와 규범은 사회의 질서와 민족 공동체를 규합하는 힘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곳에서는 사회의 약자, 특히 하층민이나 여성의 인권, 개인의 능력이 완전히 도외시되며, 양심과 책임도 작동되지 않는다. 게다가 민족의 공동체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고향의 이야기를 찾을 수도 없다. 오히려 전통적 제도와 규범이 민족, 특히 여성의 일상사에 신체 규율로 작동하며, 강압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신분 제도를 유지시키는 부조리함 그 자체인 것이다. 소환된 과거, 즉 전통적 제도와 규범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더욱이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아젠더 구축을 방해할 수도 있는 장애물로 인식된다.

따라서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새로운 국가에 부합하고 탈이념적 민족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사회 원리를 과거 전통 사회에서 소환하지 않는다. 대신에 박옥련을 비롯해 조석구, 배선명, 송창규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박옥련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능력만 갖추었다면 박옥련과 같은 노비 출신의 하층 여성도 정치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고, 사적 영역에서 현모양처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여성도 내셔널리즘의 주체로 호명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를 내셔널리즘의 사회원리로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능력주의 사회는 두 가지 사회 조직 원리와 대립한다. 하나는 물자 분배에 있어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평등주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지위와 물질이 세습되는 세습주의 원리이다. 이러한 사회 원리가 작동되는 한, 재능 있고 똑똑한 개인들이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억눌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38선 이북의 주권자들과 전통적 관습과 규범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흐른다』는 능력주의 사회와 근대의 합리주의로 성급하게 견인하고 있으며, 친일협력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면서도 모호한 인정주의로 수렴된다. 또한 정치적 주체의 여성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근대적 주체로서 현모양처를 내셔널리즘의 주체로 포섭하려 하지만, 근대적 여성상이라는 환상마저 주조하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현모양처를 내셔널리즘의 경계 안에 안착시키고 있다. 더욱이 유미를 친일 협력자로 간주하고 내셔널리즘에서 배제함으로써, 근대로의 편향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그녀가 욕망했던 성적 자기결정권마저도 내셔널리즘의 경계 밖으로 추방한다. 적극적인 친일협력자를 배제하고 여성을 정치적 실현장으로 소환함으로써 제3의 내셔널리즘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소설은 남한 정부가 구축하는 내셔널리즘과 변별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흐른다』의 대중적 인기는 소설이 가부장적 전통의 장악력 속에 살아가는 당대 독자들과 공감했다는 증빙일 것이다. 특히 여성독자들은 전통적 관습에 규율화된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편, 잠재된 자의식과 욕망을 박옥련 등을 통해 대리충족했을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가 정치적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발언하는 여성을 재현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는 한무숙의 소설세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이다. 한무숙은 1949년에 발표한 「램프」, 「수국」에서조차 전통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고통받거나 근대적 가부장제에 규율화된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지운 채 살아가는 여성들을 서사화하고 있다. 이는 『역사는 흐른다』에서 여성의 문제를 가부장적 전통이 작동하는 일상을 통해 비판적으로 내파하고 있지만, 현대적 내러티브로 재현할 수 있는 박옥련, 유미, 갑혜 등의 일상을 오히려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과는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구명숙·이병순·김진희·엄미옥 편, 『해방기 여성단편소설 2』, 역락, 2011, 599~706쪽.

한무숙, 『감정이 있는 심연(외)』, 을유문화사, 1992, 11~344쪽.

\_\_\_\_\_, 『내 마음에 뜬 달』, 을유문화사, 1992, 15~398쪽.

\_\_\_\_\_, 『대열 속에서(외)』, 을유문화사, 1992, 11~344쪽.

\_\_\_\_\_, 『역사는 흐른다』, 을유문화사, 1992, 13~378쪽.

\_\_\_\_\_, 『열길 물속은 알아도』, 을유문화사, 1992, 9~245쪽.

### 2. 단행본

이호규 외, 『한무숙 문학세계』, 새미, 2000, 7~228쪽.

- 이호철·김진웅 편, 『풍요한 부재』, 재단법인한무속재단, 1993, 9~141쪽,  
한무속재단, 『한무속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4~336쪽.  
강상중, 임성모 역, 『내셔널리즘』, 이산, 2004, 9~195쪽.  
Felski, Rita,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5~68쪽.  
Fraise, Geneviève and Perrot, Michelle, 권기돈 외 역, 『여성의 역사』 (4),  
새물결, 1998, 447~576쪽.  
Giddens, Anthony 외, 임현진 외 역,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21~162쪽.  
P.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pp.1~23.

### 3. 논문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  
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87~416쪽,  
도진순, 『1948~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정신문화연구』 27  
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97~139쪽.  
박명수, 『1946년 3·1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권 1호, 한국정치외교사  
학회, 2016, 85~122쪽.  
서정자, 『한무속 문학정신의 출발, 초기소설연구』, 『소설가 한무속 선생 탄  
생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한무속의 삶과 문학정신』, 한무속재단,  
2018.10.25, 6~18쪽.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5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53~84쪽.  
정종현, 『3·1운동 표상과 문화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23호, 한민족문화  
학회, 2007, 239~276쪽.  
조남현, 『한무속 소설의 갈래와 향심』, 『한국현대문학연구』 12집, 한국현대  
문학회, 2002, 423~449쪽.  
한무속, 『나의 자화상』, 『여성』, 조선일보출판부, 1939.1, 34쪽.

## Abstract

A Study on Nationalism and Gender in Han Mu-suk's novel. *And So Flows History*

Kim, Hyun-ju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and gender consciousness, focusing on Han Mu-suk's novel, *And So Flows History*. In this novel, a writer tried to build the Nationalism that could realize the agenda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state after liberation. The agenda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state was the key issue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overcoming ideology of the left and right, solving the remnants of the colonies and the traditional society,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So Flows History* reproduces this problem through the ceremony of 3.1 movement, and reproduces the ideal of Nationalism. The distinction between pro-Japanese/Nation(國民) is a problem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colonial residues and the overcoming of ideologies of the right and the left, so it should be flexible and rational. So this novel is critic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accepts aggressive pro-Japanese collaborators as Nation(國民), and the regime of the north of the 38th line, even excluding passive cooperators from Nation(國民).

Under these assumptions, *And So Flows History* seeks the social principles of Nationalism that can form a de-ideological national community and does not summon it in traditional society. Although the history of the nation(民族) is maintained by the traditional

systems and norms that are closely hierarchized by the status and the gender, its system and norms are the forces that not unit the society and the national community, but divide them. Therefore, it seeks the social principles of Nationalism that can support the new state in the competent society established by capitalistic development ideology and modern rationalism. In this novel, if people were capable, they hoped for a society that could succeed both as a person regardless of status or gender, and act as a political subject.

However, *And So Flows History* shows an excessive bias toward a competence society and embodies the fantasy that modern women's image is a Wise mother and good wife based on patriarchal ideology. In addition, it claims the subjectivity of women, but exposes women's sexual self-determination to the limits of expelling them from the boundaries of Nationalism.

Key words : Han Mu-suk, *And So Flows History*, Nationalism, gender, political subjects, Wise mother and good wife, competent society, Nation(國民), nation(民族)

■ 본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